



## <긴급토론> 연합뉴스와 보도채널

“제대로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이 넘어가면 어떡할 뻔 했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방송이 돌아갈 만큼은 보도국 확대해야”

“알맹이 없었던 방송교육”

“월급이 팍팍 오르고 출연수당도 받을 테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전 직장에서 능력 인정받고 번듯이 잘 살던 사람들인데..”

“새 채널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들어와서 푸대접 받고 연합이 이런 덴 줄 몰랐어요”..

번호	제목	등록일	id	조회수
1315	토론회는 끝나도 토론은 멈출 수 없습니다 [1]	2011-10-24	노조	82
1314	영상뉴스부원들의 잘못 10가지 [0]	2011-10-21	익명	100
	☞ 왜 ??? [0]	2011-10-23	익명	68
1313	힘들다 힘들어 [7]	2011-10-21	산소결..	200
	☞ 9시간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8]	2011-10-24	익명	158
1312	이 소문은 사실인가요 [3]	2011-10-21	정말인..	240
1311	영상부 직원들이 떠나가도 괜찮을까 [21]	2011-10-21	단검	311
1310	토론회 21일(금) 일단 마감하려 합니다 [2]	2011-10-20	노조	108
1308	<공지>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도입 [2]	2011-10-20	노조	70
1307	마켓분 글에 공감하며... [2]	2011-10-18	익명	93
1306	증권,보상에 앞서 생각해야할 문제..고적 [5]	2011-10-17	hopey	234
	☞ 외골 박수 '작작' .. 기존 틀에 집착하지 말아.. [0]	2011-10-18	애정남	115
	☞ 애매합니다 [0]	2011-10-17	애매자	90

보도채널의 준비 상황과 방향성을 두고 열린 토론이 벌어진 노조 홈페이지 모습.

한 번 터진 붓물은 끝이 없었다. 이제 그치나 저제 그치나 봤지만 가능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기를 고심한 끝에 공식토론회는 일단 접었다.

노조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보도채널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온라인 토론회를 10월5일부터 21일까지 노조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다.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요즘 사내 분위기를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었다. 많이 고심했음이 분명한 의견도 여럿 있었고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댓글도 적지 않았다.

보도채널의 준비 상황과 전망에 관한 현실 인식, 대안을 놓고 일부 토론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과 공방도 벌어졌다.

특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도채널 참여를 철회해야 한다는 극단적 견해부터 현 상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그러나 사내게시판을 통해 밝힌 것처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사측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웠다.

많은 분들이 토론장에 참석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분량이 많아 충분히 신지 못했으며, 기계적인 분량의 균형을 억지로 맞추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표현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살렸다.

◇ 『보도채널과 연합뉴스』 (노조 발제문) = 방송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국을 위한 실무작업이 바빠지면서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업무와 생활에도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 노조는 보도채널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다 함께 고민해 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요청이 많았지만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제약으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토론회 참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가족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내용과 주제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의 성공과 양사 간 생산적인 협력 방안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방송에 관한 애정과 아이디어,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표현할 길이 없어 안타까워 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채널의 콘텐츠와 편성에 관한 아이디어, 보도채널 지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연합뉴스의 경쟁력 저하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노동강도 악화 및 보상 문제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양사 간의 중장기적 관계 설정에 관한 것도 상관 없습니다. 토론회는 오늘(5일)부터 노조 홈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위해 조합원커뮤니티가 아니라 직원커뮤니티에 명석을 깔았습니다. 보도채널은 연합뉴스나 연합노조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론 기간은 일단 10월14일(금)까지로 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장하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경계를 넘어선 의견 개진도 환영합니다. 장문의 글도, 정곡을 찌르는 짧은 댓글도 좋습니다. 활발하고 진솔한 의견 개진을 위해 기명, 익명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두 회사가 모두 잘 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인 박정찬 사장께서 여러번 강조했듯 연합뉴스가 없으면 뉴스와이는 없습니다. 연합뉴스의 지원이 그만큼 절대적이라 뜻이겠지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연합뉴스 안에서 나오는 방송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를 향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괜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듣기 거북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회사의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신 공격성 비방이나 쓸데 없는 걱정도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뿐 아니라 연합뉴스TV 구성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아이디 ‘조합원’) = 연합뉴스 직원(임원이 아닌)들은 연합뉴스TV를 만들려고 준비한 때부터 연합뉴스TV에 출연을 요청받는 오늘까지 사실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많은 직원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합뉴스TV에 파견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직원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연합뉴스의 적지 않은 재산을 투자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투표나 노사합의 등 연합뉴스의 주인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인사와 조직 구성, 제작 방식 논의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일할 사람을 빼냈다는 거라고 본다. 통신 기자와 방송 기자의 두가지 역할을 한 몸으로 해내야 한다는 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그 기자가 빠진 자리다. ‘방송 제작하느라 물먹었는데요’라고 한다면 누가 ‘괜찮아’ 그러겠는가. 팀이라면 다른 팀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질 테고 단독출입처라면 부서 내에 대신 해주는 기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 물은 먹지 않아도 단독기사를 써내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업무강도도 높아지고 연합뉴스 콘텐츠의 질도 하락한다면 연합뉴스TV는 뭐하러 만드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통신과 방송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수습사원을 일찍 선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금 당장은 연합뉴스의 경력직 기자 채용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서별로 층원 규모에 차이는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기존 인력의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본다. 방송 인력 운용 방식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부서별로 방송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방안과 방송 전담을 정하지 않고 당번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 등 현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보수 문제도 본방송 전에 노사 단합을 통해 해결해야



☞ 1면에 이어

한다.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와 그 빈자리까지 떠맡는 기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만큼 보수는 올라야 한다. 연합뉴스TV로부터 제작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인건비는 인력 충원에도 써야 할 것이다. 또 출연자가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히 방송에 출연하는 기자에게만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부서별로 방송에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합뉴스 제작국과 연합뉴스TV 보도국 간의 에디터 합동회의 등 회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통합뉴스룸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시행 초기라는 점도 있겠지만 제작 공조에 대한 명확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교육체계도 문제다. 편집국 기자를 대상으로 한 2차례 방송교육은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런 가정은 너무 낙관적인가요?..” (아이디 ‘asdf’) =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를 늘려야죠 연합뉴스에 기자가 늘어난다면 이런 가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과학부 소속 휴대폰 제조업체 담당기자라고 가정하죠. 현재 저희 부는 부장 포함해서 10명인데 뉴스Y 출범에 맞춰 2명이 충원됐습니다. 삼성전자 기자실로 출근했다가 오전 8시37분에 스티브 잡스 사망 긴급기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사망 기사계획 좀 올려봐라” 그래서 저는 세쪽지를 올려봤습니다. 방송 출범 전이라면 IT 하드웨어를 전담하는 기자는 저뿐이어서 혼자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물론 선배들이 도와주겠죠. 다른 일도 아닌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방송 출범에 맞춰 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통신을 맡은 방송담당 기자 1명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방송담당 기자와 취재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3쪽지 중에 2쪽지는 제가 쓰고 비교적 손쉬운 1쪽지는 방송담당 기자가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송담당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또 인터뷰하러 가서 들은 추가 정보 등을 토스받고, 저도 또 다른 내용이 없는지 취재해서 종합하고 이를 방송기자에게 보내줍니다. 오후에 방송에서 오디오 참여를 요청받습니다. 종합한 기사를 바탕으로 다시 방송 스트림으로 고치고 2분 정도 전화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브와 관련된 내일용 기사를 찾아 봅니다. 혹시 방송 기자가 토스해준 내용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아. 그리고 당연히 방송에 기여했으니 보상이 있겠군요. 뉴스Y로부터 제작비를 받은 것은 당연히 저희 기자들에게 돌아오겠죠. 기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겠군요. 방송에 출연하면 추가로 보수가 지급되겠군요. 방송용 기사 작성과 리포트, 스탠드업 등이 쉽지는 않군요. 평소 뉴스 읽는 연습도 자주해야겠군요. 그 전에는 안해도 되던 일이지요. 하지만 월급이 팍팍 오르고 방송 출연 수당도 받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 “증원.보상에 앞서 생각해야할 문제..꼬적” (아이디 ‘hopey’) = 뉴스와이가 출범한 만큼 어떻게든 함께 방법은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윗분들의 독단적 결정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연합뉴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방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이 부분은 추후 논의토록 하죠. 아무튼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거죠. 즉 연합뉴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뉴스와이를 성공적

으로 런칭하느냐, 그겁니다. 정작 공개토론이 필요한 쪽은 연합뉴스가 아닌 뉴스와이입니다. 뉴스와이가 기존 공중파와 다른 혁신적인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연합뉴스의 피로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존의 통신사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디까지 뉴스와이에게 연합뉴스는 보조자 역할에 머물러야 할 테니까요. 몇 번 교육을 거쳐 그럴듯한 리포트 만들었다고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지만 전문가들 눈에는 전혀 그럴듯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제 주위 방송인력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공중파들이 왜 그토록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디테일에 많은 돈과 노력을 퍼붓고 있는지 한번 고민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와이가 해야 할 일은 그간 공중파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놓은 그 성과들을 첨단기술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로 뒤집는 데에 맞춰져야 할 겁니다.

◇ “아랫분 글에 공감하며...” (아이디 ‘익명’) =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뉴스제작을 위해서는 영상취재자가 가편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마구잡이식 촬영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만 임팩트하게 찍게 되니까요. 또 촬영자가 그 영상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본인이 직접 가편집을 해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가편을 하는 동안 취재기자가 그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사에 쓸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기사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이해하고 쓴 기사와 주석만 있으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편집자가 바로 신속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취하고 있는 작업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연합tv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자는 자신이 찍은 그림을 가편하지 않습니다. 취재기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 모니터링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후 편집자에게 어떤어떤 그림이 있다고 재차 설명해주는 수고까지 감수해야하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촬영자는 가편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연합tv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 제작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실무적 차원의 작은 그림에 대한 지적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연합뉴스 & news y... 남인가 동료인가” (아이디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 누군가 돌은 맞을 사람을 찾아라...우리 연합은 내가 책임지기보다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항상 찾네요. 일을 진행해도 이거 누가 담당이야? 누가 센터야???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밖에서는 연합이라는 곳을 대단하게 생각하던데... 실상 내부에서 보니 다른 회사들과 똑같은거 같습니다. 연합뉴스 & news y... 남인가 동료인가...지금 이 상황에서 접사고 이야기하는 분들... 잘 될 거야. 잘 될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밀고 나가도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서든 방법을 찾아서 되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안되기를 바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물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통 페이퍼? 신문사? 기반의 회사가 방송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논쟁이 꼭 일어나는데... 결론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 “통합뉴스룸 접읍시다!!” (아이디 ‘몸뚱이로 말하라’) = 뉴스Y의 발전이 연합뉴스의 발전이라고 애사심 넘치는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미디어그룹 밑에 JTBC와 중앙일보가 있듯 뉴스Y가 연합뉴스와 묶여서 연합뉴스 미디어 그룹에 있는 만큼 연합뉴스의 미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뉴스Y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은행강도론’도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연합뉴스는 사주(언론재벌 혹은 재벌언론)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지요. 게다가 법인도 별도인 만큼 뉴스Y의 수익이 연합뉴스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머투, 해경 등등 보도채널에 떨어진 회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겠죠.) ‘뉴스Y도 YTN처럼 언젠가는 별도의 회사가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뉴스Y가 성공하면 여러분 중 누구라도 월급이 오르거나 근무 환경이 좋아지거나, 공정보도를 할 수 있을까요(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것도 아니라면 연합뉴스가 경영상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1.공정보도를 지킨다(아니면 되찾는다..혹은 그 방향으로 간다) 2.연합뉴스, 뉴스Y 모두 망하지 않는다 3.노조원들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겪지 않는다.. 이 세가지 명제를 모두 지키는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대안은 뉴스Y와 연합뉴스의 확실한 분리 운영입니다. 통합뉴스룸은 폐지되거나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편 4사 중 우리와 같은 방식의 통합뉴스룸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문기자가 방송뉴스에서 ‘리포트’를 하는 통합뉴스룸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방송사들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동아의 경우 방송기자과 펜기자의 자리를 잇따라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우리식(한 기자가 펜도 잡고 마이크도 잡는)의 통합뉴스룸을 포기했기 때문에 고안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지금 펜기자가 리포트뿐 아니라 뉴스의 ‘제작’까지 하는 시스템은 펜.마이크 양쪽의 기자가 서로의 매체(신문, 방송)를 보완해서 시너지를 만들자는 ‘통합뉴스룸’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비용 조금 아껴서 수익 좀 내보자고 다른 데는 다 포기한, 그래서 살인적인 노동강도만 만들고 방송, 통신 모두를 망치는 통합뉴스룸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요? 대안은 뉴스Y의 충원입니다. 뉴스Y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YTN 비슷한 정도로는 사람을 늘려야 합니다. 이미 자본금을 많이 까먹어서 힘들다고 한대도(자본금을 어디다 다 썼는지는 나중에 다시 따져 봐야겠지요.) 문화 1명, 경제 4명, 정치 두어 명 수준은 너무 적습니다. 뉴스Y로의 연합뉴스 파견자 수를 늘리는 것이 당장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력을 늘려 나가고 파견된 인력 중 원하는 사람은 연합뉴스에 돌아올 수 있어야죠. (기차 쪽 사정밖에 몰라서 카메라나 CG, 앵커 등 직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매뉴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작성자 권영진) =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연합뉴스 기자들이 보도채널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



☞ 2면에 이어

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처럼 어리버리한 주니어의 경우에는 방송도 통신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일 새벽에 애플이 새 아이폰을 발표했는데, 스트레이트는 특파원 선배가 처리하셨지만 저도 과정을 지켜보고 박스를 몇 건 송고했습니다. 결국 밤을 꼬박 썼는데요. 어쨌든 출근해서 오전에 처리할 기사들을 처리하는데, 새 아이폰 출시가 워낙 큰 사안이다보니 방송에서 대담을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제가 좀 벅거려서 방송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하겠다고 했고요. 점심을 먹는동안는 등하고 대담원고를 부랴부랴 써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삼성이 애플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였고, 시기 장소가 문제였던 건데...저녁 전에 발표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방송 대담이 5시 은근히 걱정이 돼서 따로 연락을 달라는 부탁까지 해놓고 뉴스Y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만든 대담 원고를 읽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례 바로 앞 쪽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자료를 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얼른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보가 몇 분 늦었습니다..... 1보도 1보지만, 만약 시험방송이 아니고 진짜 방송이었다면 방송사고도 났겠지요.... 방송 때문에 제 기사가 늦었다고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늦은 건 결국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련한 선배들이었다면 저처럼 저렇게 어리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또 저처럼 좀 모자란 사람들도 빨리 적응시키려면 뭔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방송 대담 원고를 기자가 직접 쓰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처리할 게 많은데 원고를 쓰려다보면 대개 점심은 거르거나 얼른 때우고 들어와야 합니다.(저는 얼른 먹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방송 때문에 점심을 걸렀다는 다른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다면 그 때 일은 누가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방송 진행 순서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하는 게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막내 기자들이 선배들에게 “저 방송 들어가니 제 기사 대신 써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그리고 자기 담당 출입처 기사는 직접 쓰고 싶은 마음도 있게 마련일 테고요.) 따라서 구체적이고 또 (이게 더 중요한데) 현실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생각 저런 의견’ = ▲ 전 직장에서 다들 능력 인정 받고 번듯이 잘 살던 사람들인데 새로운 채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여기 와서, 월급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낯선 환경에서 고개 숙이고 웃으며 다가간 텃새님들한테서 예상치 못한 냉랭한 분위기에 쿠사리 먹으며 바보되고, 듣도 보도 못한 ‘연봉사원’이라는 이상한 꼬리표 달고 살거든요. 연합 이름 하나 보고 온 사람들인데 연합이 이런 텐 줄 정말 몰랐대요. 요즘 게시판 보고 다들 기겁을 해, 보도국 쪽 분위기는 완전 다운입니다. 게시판 글 한 문장 한 문장이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이더군요. 여기가 이런데구나. 회사에 사람에 정 떨어졌다는 사람도 많고,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말붙일 이

도 없는 사면초가에, 죄다 파리 목숨이라 자르기도 쉽겠더라고요.(아이디 ‘익명’)

▲ 최근 한달 전후로 영상부 직원들이 여러 명 퇴사했습니다. 종편으로 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지...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회사 분위기가... 영상부 직원들은 능력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 분위기가, 실제로 가장 신명나게 일해야 할 영상부 직원들로 하여금 퇴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또 연합tv 직원들과 기존 영상부 직원들이 잘 융화되지 못하는 이유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TV쪽 간부들이...기존 영상부 직원들은... 쓸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류의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로...영상부 직원들은...새로 뽑힌 사람들도 별게 없더라 식으로...서로가 서로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볼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들이...좀 더 서로 배려하면서 일하는 좋은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단검’)

▲ 연합뉴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부서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방송 준비를 하느라 취재 및 기사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십분에서 몇시간 줄어들었다. 방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 작성법도 다르고 때로는 기사에 필요한 영상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배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이를 참조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아예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되는 곳 아닌가. 연합뉴스 본연의 업무는 통신인가 방송인가. 통신이 첫 번째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방송도 중요하니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간부선배들은 왜 없나. 왜 누구라도 나서서 통신이 본연의 업무라고 말하지 않는가. 연합뉴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문제 제기도 없다면 그게 언론사인가.(아이디 ‘환영을 좇는자’)

▲ 만약 뉴스와이 출범후 잡스가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전에 자신이 담당한 기사 처리한 뒤 컨트롤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아 방송용 리포트 제작을 명령받습니다. 위에서 시키니 웃을 주섬주섬 걸치고 증권사 객장이라든지(IT나 삼성 주가에 대한 리포트라면).. 여의도 증권사 본사(애널리스트 반응을 따는 기사라면), 혹은 대학병원(혜정암에 대한 의사들의 설명을 따라 하는 기사라면)에 가야겠죠. 원하는 영상을 따고 리포트를 한 뒤 편집까지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대충 리포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후 내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출연해 잡스 이후 IT업계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그럼 종합은 누가 해야 할까요? 동료 팀원들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잡스와 관련된 내일용 기사는 누가 챙기나요? 그건 본인의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연합뉴스가 단독기사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당연히 일선 기자들 쫓아낼거 아닙니까.... 어쨌든 웬만한 대형 사고들은 뉴스와이 출범 전에 몰아서 일어났으면 좋

겠네요...(아이디 ‘가정’)

▲ 방송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국제와 지역 뉴스인 거 같아요. 보도국에 별도 조직이 없어서 국제국과 지방국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거 같아요. 엄청난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걸로는 막기 힘들 거예요. 국제국 같은 경우는 외신영상을 찾는 일까지 국제국기자들이 직접 해야 한다네요. 스튜디오에 소음이 들어간다고 와이어 기사를 출력하는 프린터도 없었구요. 최근에 주요 기사들이 누락.지연 처리되는 일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걸까요? 국제국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했었는데 반영을 안하려면 의견은 왜 듣는 걸까요?(아이디 ‘현실직사’)

▲ 반가우면서 안타깝습니다. 진작부터 나뉘어야 할 얘기들이 이제라도 쏟아져 나오네요. 결과가 어찌 됐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하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토론회에서 쏟아지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정작 방송할 사람들은 제 의견이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전혀 없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연합뉴스가 만들 TV, 그리고 두 회사의 매끄러운 협력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의견수렴이 안된 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건, 누가 앞장서서 직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고 조직화하지 못했거나 말입니다. 특히 방송을 하면서도 연합뉴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이 가장 문제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방송을 접어야 한다, 차라리 YTN을 인수하자...여러 제안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까지 온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측도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원들도 우리가 해온 일과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채널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위 담기에 너무 늦었다면 콘텐츠 부실이건, 삶의 질 악화건 연합뉴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고민 다음에는 지구(연합뉴스)와 달(TV)의 중장기적인 문제를 생각해야겠죠. 이를 테면 요즘 귀가 따갑도록 듣는 구심력과 인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서로 충돌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을까...등등...최악의 경우 하나라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아이디 ‘고민중’)

◇ 이런 댓글도...= ▲저두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회사가 이런 텐 줄 몰랐어요(아이디 ‘동감’, “연합 이름 하나 보고 온 사람들인데 연합이 이런 텐 줄 정말 몰랐다”는 글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영상인력과 부서를 다루는 걸 보면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어떤지 압니다. 화장실 들어가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절감합니다(아이디 ‘화장실’, “영상부 직원들이 떠나가도 관찮은걸까”란 글에)

▲새로 출범하는 방송 제대로 해보겠다고,인생 걸어 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잘못없습니다.이상해지는 회사 살려보겠다는 사람들 역시 잘못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나름대로 무지 노력했는데 팽당한 사람들도 잘못없습니다.(아이디 ‘익명’, “9시간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했었나요?”란 글에)



# 조합원 58.7% “현 경영진 들어 보도 공정성 후퇴”

## “지난 1년 간 업무 강도 강해졌다” 응답 84.0%

연합뉴스 노조 조합원 열 명 중 여섯은 현 경영진이 들어선 후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이 예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노조가 지난달 2~7일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조합원의 58.7%는 ‘현 정부와 경영진 출범 후 이전에 비해 보도가 덜 공정해졌다’고 답했다.

‘(공정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4.8%였고, ‘더 공정해졌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도 11.2% 나왔다.

이 조사는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합원 390명 중 243명(62.3%)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가장 공정성이 취약해진 보도 영역으로 ‘청와대·정부 등 정치권력’(83.8%)을 지목했다. ‘대기업·금융사 등 자본권력’(9.1%), ‘노동자·장애인 등 소외계층’(6.6%) 관련 보도의 공정성이 퇴보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이런 공정성 하락의 책임이 주로 경영진과 간부에게 있다(57.7%)고 봤지만 ‘경영진부터 평기자까지 아우르는 기자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답도 41.8%나 됐다.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장

기자의 의사와 판단을 좀 더 존중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4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35.6%나 됐다.

기타 의견으로 ‘기자직을 상대로 편집국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소환제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렇게 뽑힌 편집국장은 기자직 대표로서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최대 현안인 보도채널(뉴스Y) 출범과 관련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제고로 인한 피로도 증가’(53.4%), ‘연합뉴스의 수익성 악화’(19.0%) 같은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연합뉴스와 보도채널 간 콘텐츠 교류·공유에 따른 시너지 효과’(49.2%)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콘텐츠 문제와 관련해선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연합뉴스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25.7%)는 우려의 시선도 공존했다.

조합원 대다수는 지난 1년 간 업무 강도가 강해졌다(84.0%)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인력 충원’(45.9%), ‘업무 시스템 개선’(35.5%)이 주로 지목됐다.

보도채널 개국에 따른 업무량 증대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조합원들의 노동 강도는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단협에 명기된 ‘숙직·야근 후 오전 휴식’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50.6%가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35.4% 뿐이었다.

의무휴가나 보상휴일도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단협상 연간 10일은 별도의 보상금도 못 받는 의무휴가인데 이 열흘을 다 썼다는 사람도 52.9%에 그쳤다. 보상휴일의 이행률도 별로 높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휴가를 제대로 못 쓴 이유로 ‘부서장 눈치나 부서 분위기 등으로 자의반 타의반 못 썼다’거나 ‘업무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서’ 등을 들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휴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해당 부서장 문책’ ‘강제적 휴가 명령제 도입’ ‘의무휴가를 못 쓸 경우 회사가 부담 가질 정도로 많은 액수의 금전으로 보상’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복지 제도로 사내복지기금(주택·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한도 확대(30.1%), 복지카드제 도입(26.2%), 어학교육 등 각종 재교육 프로그램(18.4%) 등을 꼽았다.

# 소셜미디어 시대 연합뉴스는 어디에 서 있나

## “기사 링크 포함된 트윗수 7위, 기사 노출량 15위”

‘바른 언론 빠른 통신’ 연합뉴스가 통신사로서 그동안 내세워온 모토다.

연합뉴스가 가진 속보의 강점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 간 신속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시대와 맞아 떨어진다. 팩트에 충실한 기사 역시 정보의 정확성이 우선시되는 소셜미디어에 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한 매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의 반응은 이 같은 기대를 크게 벗어난다. 트위터에서 기사가 많이 링크된 상위 30개 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사 링크가 포함된 트윗수 전체에서 연합뉴스는 매일경제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기사 전체 노출량을 기사수로 나눠 기사 1건당 몇 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보는지 파악하는 ‘기사 1건당 평균 노출량’에서는 15위에 그쳤다. 다른 분석지표의 결과도 ‘흐림’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는 지난해부터 미디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소셜미디어의 여론 동향을 분석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소셜미디어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다.

총선과 대선 등의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몰려 있는 내년 ‘정치의 계절’에서도 소셜미디어는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는 이용자층의 면면을 들여봐도 중요도가 높아진다. 트위터는 참여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성향을 떠나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른다. 이용자층 가운데 30~40대가 많고, 직업군도 포털에서 댓글을 다는 네티즌과 달리 화이트칼라가 중심축에 서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큰 여론집단이다.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소통 속도는 빠르다.

기사를 소비하는 독자층의 평균보다 이들의 교육 및 구매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에서 연합뉴스가 기대만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특정 분야의 기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랜 일이다. 중요한 팩트가 누락돼 나가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에 대중들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트위터에서 연합뉴스 특정 기사에 대한 공격이 연합뉴스 전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경험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편집자가 기사를 선택해 제시하는 포털과 달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선택한다.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한 선택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물론 입길에 오른 콘텐츠는 극히 일부여서 전체적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합뉴스 기자 개개인들의 관심 및 친화력 부족 역시 되짚어볼 문제다. 연합뉴스 기자들은

통신사 특성상 타사 기자들보다 바쁘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는 모바일 시대에 핑계가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기자들에게도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의 주도권은 공급자에서 수용자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 우리의 기준과 원칙, 불가피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중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뒀어야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가 다른 매체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응이 빠른 측면도 상당하다. 뉴스 도매상으로서 선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작은 성취에 도취해 환부를 방지했다가는 감당 못할 병으로 키울 수 있다. 5년, 10년, 20년 뒤 연합뉴스의 위상을 더욱 높려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